

(강원)지역 도난 문화유산 입증 자료

문화유산명	지정번호	소유자명	주소	연락처
평창 월정사부도	강원 유형문화재자료-42	월정사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산1	

일제강점기 아나누마 준이치(天沼俊一)의 「조선기행(朝鮮紀行) 上」, 『동양미술』 제3호(1929년 4월)에 월정사와 부도군의 사진을 남겼다. 이 사진은 국립중앙박물관 유리건판사진(건판016580)과 거의 같은 지점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두 사진에는 경내 북서쪽에 팔작지붕 형태의 옥개를 올린 석비가 확인된다. 그 형식으로 보아 현재 부도군 앞으로 옮겨진 학허당대사기념비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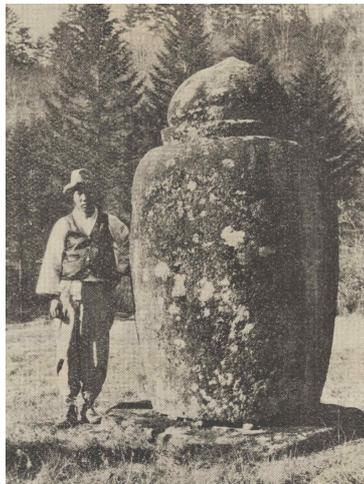
월정사 부도군 전경 1(「朝鮮紀行 上」, 19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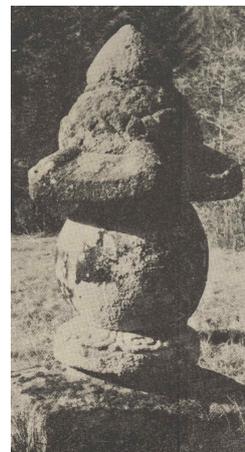
월정사 부도군 전경 2(「朝鮮紀行 上」, 1929)



연과대사탑(「朝鮮紀行 上」, 1929)



인허당대사탑(「朝鮮紀行 上」, 1929)



현재 결실된 부도(「朝鮮紀行 上」, 1929)

1929년 촬영된 부도군에는 모두 21기의 부도와 1기의 석비가 확인된다. 이에 반해 현재 월정사 부도군에는 30기의 석조부도가 남아있다. 이 가운데 현대에 건립된 10기를 제외하면 20기의 부도가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1929년 사진에는 석종형 부도 18기, 옥개석이 있는 원구형 석조부도 3기가 있는 것으로 판독된다. 현재 부도군에 남아있는 석조부도 가운데 일제강점기 사진의 원구형 석조부도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1기이다. 따라서 부도군은 1929년 이후 원당형 부도나 석비 등 여러 기의 탑과 비가 결실되었으며, 기존 부도군의 석조 부도를 모방한 석종형 부도가 새로 건립되는 등 여러 변화를 겪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이후 1975년경까지 부도군은 큰 변화를 거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975년 촬영된 사진(국가기록원소장)이 참고가 된다. 이 사진에는 학허당대사비에 의해 가려 자세히 알 수 없지만,¹⁾ 1929년 사진에 보이는 원구형 부도 2기가 확인되며, 탑비 1기도 확인된다. 1929년 촬영되었던 부도 역시 1975년 사진에서 확인되고 있다. 아울러 전반적인 배치가 1929년 사진과 매우 흡사하다.

이후 월정사 부도군에는 새로운 부도가 건립되었는데, 예를 들어 동암당(東庵堂) 현우탑(玄雨塔)은 2009년 부도군의 가장 북쪽 맨 윗 줄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현재 가장 아래 남쪽 중앙부에 위치하며, 2010년 부도군 가장 남쪽 서쪽에 있었던 현재는 인허당(印虛堂) 택호대선사탑(宅豪大禪師塔)도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고, 이후에 흥원당(弘願堂) 월면탑(月面塔)이 새로 건립되었다.



월정사 부도군 전경(「朝鮮紀行 上」, 1929, 합성)



월정사 부도군 전경(국가기록원, 1975년)

1) 1975년 사진에서 학허당대사비가 있는 암반이 노출되어 있다. 현재의 도로가 개설되면서 노면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월정사 부도군 전경(2011년 3월)



월정사 부도군 전경(2020년 10월)